

# 꽤 막힌 4월국회 ‘여야정 협의체’ 승부수

### 문대통령, 與 지도부에 제안 ... 야권 ‘피할 이유 없다’ 이미션 임명 변수 ... 강행시 정국 경색 심화 불가피

공정만 거듭하는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카드가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여야 대립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 불가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정적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치에 4월 국회가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4월 국회 초판 청와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히 반발한 야당이 주시 과다 보유-때때 논란을 빚은 이미션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반대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여야 대치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여야 모두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단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당 원내핵심관계자는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피할 생각은 없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화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행기

를 타기 전 안부 전화하듯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사 잡사가 벌어진 상황인데 여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언제든 열어야 한다고 꾸준히 얘기했다”면서도 “최저임금법 등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해도 국회로 가져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5일 첫 회의를 했다. 당시 분기마다 1회 회의를하기로 합의했으나, 첫 회의 이후 여야정 협의체가 열린 적은 없다.

당시 첫 회의에서 쟁점 현안였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보완입법 마무리, 아동수당법 개정 등에 합의하며 민생-경제 입법 추진에 성과를 봤다.

여권이 첫 회의 때처럼 꽤 막힌 대치 정국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풀어보려고 하

지만 협의체 회의가 실제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이 끝나는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전에 청와대가 이미션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커 야당의 강력 반발에 대치 정국이 더욱 경색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승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만큼 19일께 이후 야당 임명이 있을 것인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론 속에 여야정 협의체 성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국 교착을 풀자는 것인데 야당이 청와대 인사실패를 주장하며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할 수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해찬 “총선 전략공천 안한다” 원의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 ... “240석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의 지역위원장 협의체 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없는 지역이 아니면 전략 공천을 안 하겠다”며 “당내 공천으로 분란이 생기거나 균열이 되면 총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일이 이번에는 없도록 경선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240석 (승리) 목표표로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까지만 승리하면 충분히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5명 원외 위원장들이 내년 총선에 다 당선되면 우리는 (현역 의원 지역구 사수까지 합쳐)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해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가 역행-역진한 모습을 똑똑히 보았는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계속해서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해지고 승리를 못 하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이 불발된다는 가정 아래 총 300석 가운데 80%의 의석을 가져가는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정 전반이 위기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20년 집권론’을 제시,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 대표가 ‘총선 싹쓸이’ 발언으로 소모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성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240석 승리 목표를 거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연말이 되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또 한 번의 전세 역전 상황이 분명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KT 청문회’ 기싸움 증인 채택·추가 의혹 공방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개최한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에서 KT 채용비리 의혹과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전 여야는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한 끝에 청문회를 겨우 개회했지만 이후에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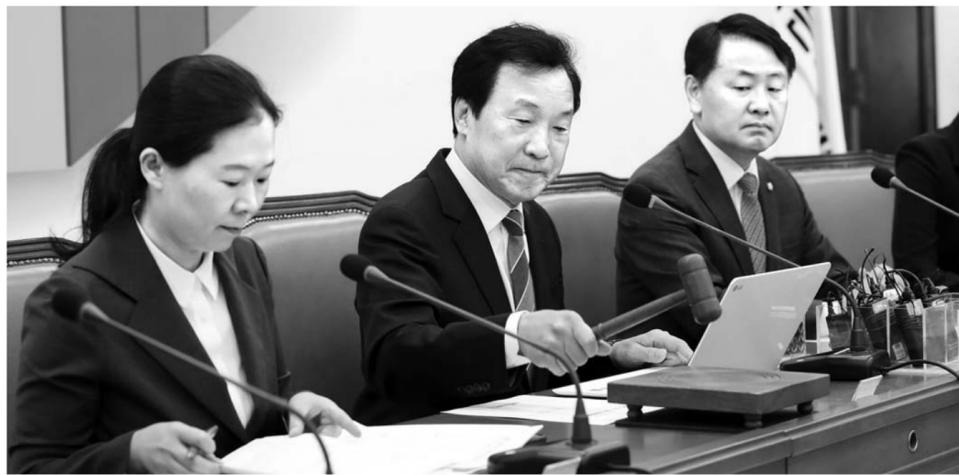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에게 “KT의 정치권 줄대기의 꽃은 채용비리”라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뿐 아니라 조카도 KT에 있다고 들었다. 직접 보고받거나 파악한 것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이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화재사고와 관련한 것만 질의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후 발언을 통해 “아무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안)은 정치적으로 토론을 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웅래 광복위원장도 “특정인에 대한 질의라면 당리당략적 의도가 있는 거로 보일 수 있어 제지할 것이지만 국민기업인 KT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도 다룰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일촉즉발’ 바른미래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다. 이른바 손학규 ‘옹호파’와 ‘퇴진파’ 간 대립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18일 오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한 데 모여 손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에도 한 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30여명의 참석자 대부분은 지도부 사퇴 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인사들은 국민당계 지역위원장들이 ‘결의’하는 대로 즉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손 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열흘째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 3인

은 17일 손 대표의 “주말까지 당무에 복귀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 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재신임투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라며 “이안을 받지 않으면 지도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십시오”라며 “저는 주말 이후에도 최고위 회의에 갈 일 없습니다”라고 쓰아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국민의당계 일부 중진 의원들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5·18 망언·세월호 막말 모두 엄벌”

### 민주, 대야 공세 고배 ... “숨방망이 처벌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관련 비난 글과 5·18 망언에 대한 징계를 거듭 촉구하며 대야(對野)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이 오는 19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각종 막말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숨방망이 징계’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계를 받기 않으면 지도부 불신임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십시오”라며 “저는 주말 이후에도 최고위 회의에 갈 일 없습니다”라고 쓰아붙였다.

한편, 손 대표는 국민의당계 일부 중진 의원들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문심사위원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도 출석시키라”며 “국회 차원의 5·18 망언 징계도 발목잡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천시와의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감 능력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것”이라며 “명단 발표를 두고 ‘황 대표가 한국당 대표가 되니 정치적 공격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망언을 쏟아냈다”며 “국민적 비난이 폭주하자 한국당은 조속히 윤리위에 회부하고 당 대표가 사과에 나섰다만, 지지부진한 5·18 망언 징계 과정을 지켜보면 역시 요석행위인 그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66-9988

##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point 2 4 6 3 7 1 2 8 0

J3 6point 4 6 2 8 1 0 9 7 3

J2 5point 2 7 6 2 1 4 9 0 2

J1 4point 8 1 2 7 9 0 0 2

J1\* 3point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